이의리, 어린이날 챔필서 시즌 첫 승 도전

오늘 키움과의 홈경기 등판
"승리의 세리머니 하고 싶어"

'감 잡은' 이의리가 어린이날 첫 승 사냥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이의리를 선발로 내세워 키움 히어로즈와 시즌 6차전을 벌인다. 답답한 타선의 흐름 속 승보다 패가 많은 KIA에 그나마 '믿을 구석'은 선발진이다.

이의리도 초반 난조를 딛고 지난 4월 29일 삼성전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기록했다.

손가락 물집으로 실전이 부족했던 이의리는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5번째 등판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날 경기가 불펜진의 난조로 아쉬운 역전패로 끝나면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프로 데뷔 처음 7이닝을 찍으면서 워밍업을 끝냈다. 이의리의 앞선 최다 이닝은 지난해 4월 22일 LG전에서 기록한 6.2이닝이다.

이의리는 "그동안 밸런스 찾는 데 집중했다. 느낌은 지난 키움(4월 23일)전부터 조금씩 찾았다"며 "한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5번은 던져봐야 내 밸런스를 확실히 알 것 같다. 이제 찾았으니까 2~3번 정도 던지면서 잡겠다"고 언급했다.

앞선 삼성전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직구 승부'였다.

이날 7회를 83구로 막은 이의리는 75개의 직구를 던졌다. 최고 구속은 151㎞, 평속은 145㎞였다. 슬라이더 (131~139㎞), 체인지업 (134~139㎞)은 각각 5개와 3개만 구사했다.

힘 있는 직구로 빠르게 승부하면서 '이의리표' 특급 구위를 과시했다.

이의리는 "첫 타석, 1회 끝나고 삼성 타자 선배님들이 빨리빨리 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높게 보고 빨리 승부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프로 첫 7이닝을 소화했지만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던 이의리는 개인 성적보다는 팀 성적을 먼저 이야기했다.

이의리는 "승리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다. 승리는 어쩔 수 없다. 팀이 이기면 좋다"고 팀 승리를 먼저 말했다. 앞선 등판에서 제구 우려는 털어냈지만 숙제는 있다. 체인지업이 아직은 손에 완벽하게 붙지 않고 있다.

이의리는 "체인지업을 어떻게 던지는지 까먹었다(웃음). 연습으로 던질 때는 잘 되기 하는데 아직은 감이 안 오는 것 같다"면서도 "천천히 찾으면 될 것 같다. 아직은 시즌 초니까 차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고는 하지만 '승리 세리머니'에는 욕심 난다.

올 시즌 KIA는 승리 날 선수단이 직접 '수훈 선수'를 뽑고 있다. '수훈 선수'로 선정된 선수는 커다란 호랑이가 그려진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자신이 선정한 음악을 튼 채 휴대용 스피커를 끌고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원정날에는 선수단 버스까지 행진을 하면서 팬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선물하고 있다.

이의리의 역할 중 하나가 정해영과 함께 세리머니 용품을 챙기는 것이다.

이의리는 "(김)도영이는 야수라 챙길 짐이 많아서 해영이 형이랑 내가 스피커랑 챙기고 있다"며 "나도 한번 세리머니 해보고 싶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궁 국가대표팀 챔필서 특별 훈련 … 안산·김제덕 '신궁' 맞대결

챔피언스필드에서 '신궁' 맞대결이 펼쳐졌다.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5차전이 열린 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양궁 국가대표팀의 특별 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경기장 소음 등을 경험하면서 중압감을 이겨내고 실전감각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고, 양궁 남녀 대표팀(리커브, 컴파운드)이 찾아 단체전을 치렀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선수는 역시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혼성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안산(광주여대)과 김제덕(경북일고)이었다. 안산은 안산답게 흔들림 없이 과녁을 조준했고, 김제덕은 그라운드에서도 특유의 파이팅을 외쳤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강심장'들이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훈련은 두 사람에게도 특별했다.

안산은 "야구장에서 활을 처음 쏴보는 데 이렇게 시끄럽게 경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들떠있었던다. 시합하면서 그런 부분을 잡으면서 해야 할 것 같다.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덕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훈련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 많이 긴장도 되고 북치는 소리에 심장도 쿵쾅거렸는데 조금씩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파이팅 외치면서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시구자로 야구장을 찾은 적이 있다. 안산은 KIA와 LG 경기, 김제덕은 KT와 두산의 한국시리즈 4차전 시구자로 그라운드에 올랐다.

안산은 "시구와 다르게 활 쏘는 것은 본업이기도 하고, 신기한 환경도 많아서 처음에는 정신 없었다. 시합할 때는 팀원들과 나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쏜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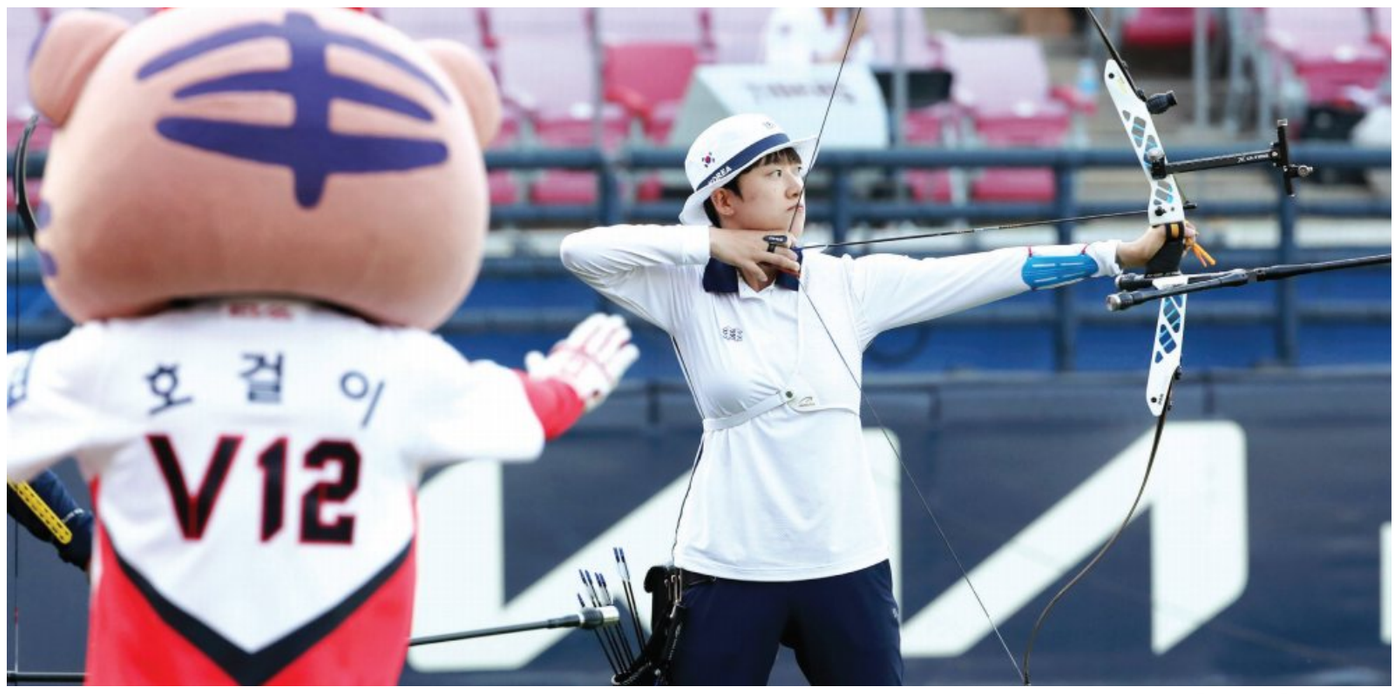
김제덕은 "시구할 때는 관중석 보면서 던지는 것이라서 많이 긴장됐었다. 오늘은 나와 표적지만 생각했다. 대회 나갔을 때 긴장 풀어나가는 방법, 시끄러울수록 내 것만 하자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KIA를 향한 응원 메시지도 남겼다.

KIA팬이기도 한 안산은 "오늘은 우리가 왔고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꼭 이겨주고, 김도영 선수는 기죽지 말고 화이팅 해주세요. KIA 타이거즈 화이팅"을 외쳤다.

김제덕은 "KIA 야구장에 와서 소음 훈련을 했는데 그라운드에서도 파이팅 크게 외쳤다. 집중하면서 게임 즐겁게 파이팅 넘치게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응원을 보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2항저우아시안게임 양궁 국가대표 안산이 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KI 타이거즈의 경기에 앞서가진 특별훈련에서 활을 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6월 2일 '최강' 브라질과 한판 승부

2022 카타르 월드컵 모의고사
6일 칠레·10일 파라과이와 경기
우루과이와 본선 조별리그 대비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는 벤투호가 6월 '최강'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팀들과 모의고사를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6월 A매치 기간 치를 평가전 4경기 중 3경기 상대를 확정해 4일 발표했다.

첫 상대인 브라질과 경기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며, 다른 두 경기 개최 도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칠레전은 6일, 파라과이전은 10일로 예정됐다.

브라질은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다.

역대 월드컵 최다 우승국이자,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남미예선도 1위로 통과했다.

치치 감독의 지휘 아래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 피르미누(리버풀), 히샬리송(에버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포진해 있다.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인 골잡이 손흥민과 네이마르, 피르미누 등 브라질 특급 스타들의 맞대결이 상암벌에서 펼쳐지게 됐다.

한국은 브라질과 역대 전적에서 1승 5패를 기록 중이다.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0-3으로 진 게 마지막 대결이었다.

FIFA 랭킹에서 한국(29위)보다 한 단계 높은 28위 칠레는 남미 예선에서 7위를 해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아르투로 비달, 알렉시스 산체스(이상 인터 밀란), 가리 메델(볼로냐) 등을 보유한 강팀이다.

한국은 칠레와 역대 전적에서 1무 1패를 기록 중이다.

지난 2018년 9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벤투 감독 부임 이후 두 번째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적이 있다.

파라과이는 남미 예선에서 8위를 해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FIFA 랭킹은 50위다.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파라과이에 2승 3무 1패로 앞선다.

2014년 10월 천안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한 것이 가장 최근의 맞대결이다.

황보관 축구협회 대회기술본부장은 "최근 1년간 아시아 팀, FIFA 랭킹이 낮은 유럽 팀을 상대했는데, 이번에는 남미 강호들과 대결해 우리의 객관적 전력과 미비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칠레와 파라과이는 우리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상대인 우루과이와 비슷한 스타일이어서 본선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6월에 치를 나머지 한 경기 상대를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손흥민

네이마르

전남드래곤즈 이제는 '승격 전쟁'

7일 부천과 K리그2 14R

전남드래곤즈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이하 ACL) 경험을 살려 다시 '승격' 전쟁에 뛰어든다.

전남은 오는 7일 오후 6시 30분 부천종합운동장으로 가서 부천FC와 K리그2 1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2021시즌 K리그2 팀 사상 첫 FA컵 우승 대업을 이룬 전남은 지난 4월 ACL 무대를 밟았다.

아쉽게 조별예선에서 2승 2무 2패(승점 8점)를 기록, G조 3위로 목표했던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소득은 있었다.

아시아 최정상 팀들을 상대로도 전남의 수비는 강했다.

전남은 경기당 0.83의 실점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다.

문제는 역시 득점력이었다. 전남은 6경기에서 5득점에 그치면서 16강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자신감과 숙제를 동시에 안고 돌아온 전남은 리그 2위에 올라있는 부천을 상대로 '승격' 목표를 위해 다시 뛴다.

큰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골키퍼 김다솔은 "ACL에서 느꼈던 실점과 득점에 대해서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남은 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다솔은 "많이 아쉽다. 경기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졌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마음이 있다. 선수단 모두 같은 마음이다"며 "특히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였던 BG빠툼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온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멜버른 경기도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CL은 끝났지만 정규리그와 FA컵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느꼈던 득점에 대한 부분을 선수단 모두 훈련하면서 보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며 "남은 대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실점도 줄이고 득점력을 높여야 한다. (5월 FA컵 포함 6경기) 일정은 피곤하겠지만 ACL의 경기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 준비 잘해서 팀 목표인 승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ACL에서 득점포를 기록한 플라나는 "팀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은 퍼포먼스 펼칠 수 있는 무대였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득점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좋은 경기를 펼쳤다"면서도 "16강 진출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득점했어야 했고 더욱 책임감 있게 경기했어야 했다"고 자평했다.

또 "5월 모든 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집중하며 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경기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문제없다. 자신 있다"며 "지금까지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전남이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하는 게 나의 목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독일 국가대표 토마스 뮐러 뮌헨과 2024년까지 재계약

독일 국가대표 공격수 토마스 뮐러(33)가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과 2024년까지 재계약했다.

뮌헨 구단은 3일(현지시간) 뮐러와의 기존 계약을 1년 연장해 2024년까지 동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뮐러는 2000년 유소년팀에 합류한 이래 24년간 뮌헨에 몸담게 됐다.

TSV팰 유소년팀에서 2000년 뮌헨으로 옮긴 뮐러는 2군 소속이던 2008년 8월 분데스리가에 데뷔했다. 이를 기준으로 뮐러는 이번 계약을 포함해 프로 선수로 16년간 뮌헨에서만 뛰게 된다.

정식 프로 계약을 맺고 나선 첫 시즌인 2009-2010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3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한 것을 시작으로 뮐러는 뮌헨이 독일 최강 클럽의 지위를 이어가는 데 앞장서며 팀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로 성장했다.

독일 프로축구 최강 구단인 뮌헨이 이번 시즌에도 리그 왕좌를 지키면서 뮐러는 분데스리가 최초로 개인 통산 11번째 우승을 경험한 선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뮐러는 뮌헨과 함께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6차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은 2차례씩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는 뮌헨 소속으로 공식전 624경기에 출전해 226골 242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에서 7골 17도움을 올리는 등 활약을 이어갔다.

/연합뉴스